

‘구두와 책’, 어색하지만 행복한 만남

도서관설립 통해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실천하는 에스콰이어 이인표 회장

우리에게 있어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덕목은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다. 그러나 “예외 없는 법칙은 없는” 법인가. 그저 책과 아이들을 사랑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며 ‘어린이도서관’을 끊임없이 세우고 있는 (주)에스콰이어의 이인표회장(70)은, 낯선 그 덕목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장본인이다.

소득없는 일거리인 것은 접어두고라도 일한 표시도 잘나지 않는 어린이도서관 건립만 고집해온 그가 이번엔, 91년 10월5일 중국 연길시에 인표어린이도서관을 개관한 데 이어, 지난 8월19일 김립성 용정시에 두번째 도서관 문을 열면서 해외동포들에게까지 눈을 돌리고 있다. 인표어린이도서관이 다른 도서관과 다른 것은, 이것이 결코 형식성만 내세운 사업의 결과물이 아닐 뿐더러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에 세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건 모두 국민의 덕 때문이 아닙니까. 거창한 생각보다는 ‘당연’한 일이란 생각에서 하게 되었는데, 과로로 몇년 전 일선에서 물러서면서 어린이도서관이 가장 적합한 할일이란 결론을 내렸어요. 미래를 대비하는 장기적 투자의 대상은 아이들일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도 책을 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도 책이 부족하거나 부모가 살기 바빠 거두지 못하는 아이들의 갈증을 해소해주고 싶었어요.”

낙도·달동네만 찾아 도서관 세워

지구상의 달동네만 취재한 독일 여기자가 쓴 책에서 “한국의 달동네에는 단칸방에 온 식구

가 모여 산다. 그래서 아이들만의 공간이 없다. 그러나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술에 취한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 자식들에게 하는 첫마디는 공부했냐는 것이다. 그게 다른 나라와의 차이다”라는 구절을 읽고 우리의 대단한 교육열에 걸맞는 도서관 설립의 중요성을 다짐했다는 게 도서관 설립동기에 대한 그의 설명이다.

그런 그의 생각때문에 인표어린이도서관은 번듯한 주택가나 남들의 눈에 잘 띄는 대로변이 아닌 낙도나 달동네에 가야만 찾을 수 있다. 90년 5월4일 노원구 상계동 북부종합사회복지관에 들어선 첫도서관부터 부산 구포동(장선종합복지사회관), 광주 오치동(광주종합복지관), 구로구 구로동(구로종합사회복지관), 전남 진도, 강원도 태백, 성북구 하월곡동, 김립성 연길시, 대전 대덕구(중리종합사회복지관), 인천 삼산동(삼산종합사회복지관), 대구월성동(동래구종합복지관), 김립성 용정시 등의 지역 가운데 비교적 생활형편이 좋지 않은 아이들이 몰려 있는 곳에 들어선 14곳의 도서관 전부가 그렇다. 장소물색 역시 그가 ‘신발’이 닳도록 돌아다니며 했다. 그렇다고 무조건 그의 마음대로 도서관이 세워진 건 아니다. “세우는 게 다가 아니고, 어떻게 이용하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지론대로, 설립을 위해 중앙대 도서관학과 김효정교수 등 전문가들에게 외국의 예를 점검하도록 해, 3년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연구한 다음, 아이들이 실제로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과학적 방법에 의해 마련한 것이다.

그 결과 인표어린이도서관의 시스템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도서관 내부에도 그의 치밀함과 세심함은 지극한 정성으로

“전국에 세워진 도서관으로부터 매일 아이들이 즐겨 찾는다는 보고를 받는 게 사는 낙이고, 그곳에 들러 아이들과 어울리면 만사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어린이에 대한 투자는 1백년 후를 내다보고 하는 일로 우리 사회의 유일한 자원인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확대되어야 한다.”



이인표회장.

배어 있다. 책상과 의자 등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철제가 아닌 목재를 사용하고, 실내장식도 아이들의 정서에 어울리도록 심지어 색조예까지 관심을 기울였다. 외양뿐만 아니라, 일단 이 도서관을 이용해 본 어린이면 누구나 지속적으로 책에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독서카드를 발급해, 30권의 책을 읽은 아이들에게는 직접 시상도 하고, 책에 나오는 주인공에게 편지를 쓰도록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인형극과 명작동화의 비디오를 상연하고 독서 감상화대회를 개최하는 등 아이들을 책걸로 유인하는 ‘미

끼’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설립 이후에도 꾸준한 관심을 갖고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이인표회장은, “기업가는 단순히 장학금이나 마련하고 만족해하기 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형태로 기업이윤환원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재단 수익금 전액 도서관에 투자

83년 ‘이인표재단’을 설립해 거저서 나오는 수익금 전액을 도서관 확장과 운영에 쓰는 것으로 자신의 의지를 실천하고 있는 그는, 고회의 고령에도 일주일에 한번씩은 반드시 도서

百濟史

신형식 지음/9,000원

지금까지 발표된 백제사 연구를 객관적으로 정리, 그동안 왜곡 인식되어온 백제사의 내면적 성격과 문화적 특성을 구명하면서 한국고대사의 성격과 발전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백제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다.

루소의 자연교육사상

안인희·정희숙·임현식 지음/7,000원

현대교육의 철학적 사상에 큰 영향을 미친 루소의 자연교육사상에 대한 연구서. 「에밀」을 대상으로 아동관, 자연교육 방법, 도덕교육, 종교교육, 이상적인 인간상, 여성교육론 등의 개념을 정리, 분석하였다.

기본적 인권과 재판

-미국 대법원 판례-

H·J·에이브러햄 지음/윤후정 옮김/14,000원

헌법판단을 통하여 매우 중요한 기본권 재판의 기준을 제시해온 미국 대법원의 방대한 판례들을 핵심적으로 요약,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중요한 재판 기준들을 탁월한 통찰력으로 정리하여 기본적 인권과 사법절차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표상과 실재

힐러리 퍼트남 지음/김영정 옮김/6,000원

인지과학분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며 현재 유행하고 있는 기능주의의 한계와 그 여파에 대한 철학적 비판서. 인간의 마음을 컴퓨터 알고리즘화하려는 시도의 부정적 결과를 비판하고 인간 마음의 본성을 새롭게 밝혀준다.

학술출판 대학교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750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전화 : 360-3163, 360-3164 팩시밀리 : 312-4312

관을 돌며 미흡한 점의 유무를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매달 전국에 세워진 도서관으로부터 아이들이 잘 이용한다는 보고를 받는 것이 사는 낙이고, 그곳에 들러 아이들과 어울리면 만사로부터 자유로와진다”는 그다. 국내의 후미진 곳을 골라 도서관을 세운 이인표회장이 교포들이 모여 사는 중국에도 관심을 기울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우리말과 글이 점차 잊혀져가는 그곳 동포의 어린이를 위한 첫번째 도서관이 세워진 것은 작년 10월로, 반응이 좋아 얼마전 김림성 조선족 자치주 용정시에 2호째 도서관을 개관했다.

용정에 세워진 이 도서관은 시립도서관 3층에 약 40여평 규모로 꾸며져 있는데, 국내서적과 중국서적을 포함한 6천여권의 장서가 마련돼 있으며, 3개월 단위로 신문과 잡지를 계속 지원한다고 한다. 중국의 인표어린이도서관은 앞으로 하얼빈시와 심양시에도 세워질 예정이며, 중국과 마찬가지로 독립국가연합의 사할린 지역에도 이인표회장은 도서관을 세우려 한다. 이런 그의 ‘도서관 세우기’의 역사는 10년전으로 거슬러올라가야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지난 83년엔 사회과학도서관도 건립

“짧은 기간 안에 산업화를 진행시키다 보니 인간성의 상실이라든가 하는 보다 근원적인 것을 쉽게 잃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특히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자연과학에 역점을 두자니 자연히 사회과학부문에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왔고, 그것이 무리한 산업화 병폐의 하나로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광주시 오저동의 인표어린이도서관 내부. 어린이들의 정서에 맞는 실내장식에 책상과 걸상은 모두 목재로 제작됐다.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일본인들이 한국인과 대결할 때 언제나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게 한국인은 책을 도통 읽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란 애길 우연히 일본 기업가로부터 전해들은 그는 10년전에 도서관을 세울 작정을 하게 된다. 맞물린 두가지의 생각으로 사회과학의 진흥을 뒷받침할 도서관을 세우기로 마음먹은 이인표회장은, 83년 5월 종로구 사직동에 1천여평 규모의 5층건물을 지어 한국사회과학도서관을 마침내 개관한 것이다.

세미나실, 대강당, 일반열람실을 비롯한 대규모 시설과 5만여점의 단행본과 정기간행물 1천5백여종, 그리고 마이크로 폼 5만3천여종을 보유한 이 도서관은 올해로 개관 9주년을 맞고 있어, 그동안 이곳을 이용한 이용자수만도 28만여명에 이른다. 지난 3월에는 전산화 시스템

을 도입해 모든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중인 것을 보면, 결코 전비용 투자가 아님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대학교수와 학생 등 누구나 무료로 연구할 수 있도록 만든 이 도서관은 대학신문에 광고를 내면서까지 ‘돈드는 고객’을 찾고 있을 정도니까.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제 남은 여생의 모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년 5,6개씩을 짓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한 20개 정도를 세운 뒤에는 좀더 많은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내실화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그저 훌륭한 인적자원 밖에 가진 것이 없고, 그 자원을 무궁토록 하려면 먼 장래를 내다보고 어린이들에게 정성껏 투자하는 게 최선이 아니겠습니까. 어릴적 독서습관만이 나라발전의 밑거름이 될 재목을 기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게 제

신념입니다.”

이인표회장이 책과 관련해 벌이고 있는 사업은 어린이도서관과 사회과학도서관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민독서문화진흥회가 주관이 돼 시간이 없어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차량에 1천권의 책을 싣고 방문해 책을 대출해주는 ‘움직이는 도서관’의 운영비를 작년 11월부터 계속 매월 3백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1백년 앞을 내다보고 투자한다”

꼭 31년전 조그만 점방으로 구두업체에 발을 들여놨던 이젠 광고제작전문업체인 MAPS 등 3개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을 만든 이인표회장의 기업경영 이념은, 인간제일·고객제일주의다. 엘리트층 중히 여기는 “인재제일이 아니라 인간제일”이라고 강조하는 그가 많은 문화사업을 제껴두고 책을 읽히는 도서관을 택해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을 전력으로 실천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내년 정부예산 가운데 당초 문화부 예산으로 잡혀 있던 전국2백67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지원비 15억원이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사재를 털어가며 “1백년 앞을 내다 보고 어린이도서관에 투자한다”는 이인표회장의 말을 꼭 전하고 싶다.

—최태원 기자

출판 외길...

18년 동안 고집스럽게 철학이라는 한 우물만을 파온 전문출판사 서광사! 그동안의 땀방울이 모여 마침내 200권의 책으로 탄생했습니다. 이 200권의 철학책으로 여러분의 진리에의 목마름을 해결하십시오.

200 포스트모더니즘의 철학과 포스트마르크스주의

윤평중 지음 / 5,000원

예술·철학·사회 경제적인 구조 변화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철학적 의미를 해명함으로써 이는 20세기 말의 심대한 사상적 지각 변동을 드러내는 중층적 기호임을 밝히는 한편, 이 정신의 사회·철학적 표현인 포스트마르크스도 함께 다룬다.

199 자연주의적 유신론

소홍렬 지음 / 4,000원

종교에는 역사관이 있을 수 없다는 고정 관념을 거부하면서 유신론적 역사관과 자연주의적 존재론 즉 신관을 집목시켜 보자는 새로운 시도에서 출발하여 과학철학·심리철학·문화철학·인지과학 분야에 대한 관심 문제가 폭넓게 제기된다.

198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I. 칸트 지음/이한구 옮김 / 3,000원

칸트의 평화론은 그의 역사철학, 도덕철학, 정치철학적인 관점에서 학문적으로 논의한 것이며, 영원한 평화의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논증한 것으로,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지향해야 할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 주는 널리 알려진 고전이다.

철학서적 서광사 전문출판

130-072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대표전화 924-6161 팩시밀리 922-4993